

# 사슴중탕 덤핑광고 유통혼란



사슴중탕을 대폭 할인해 판매하면서 녹용을 무료로 준다는 등의 사슴중탕 광고가 난무, 국내 사슴제품의 유통질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양록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양록협회에 따르면 사슴중탕을 할인해 판매하거나 녹용을 무료로 증정한다고 광고하는 업체는 4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 조합과 ㄷ한방은 사슴중탕과 사슴녹용 중탕을 시중가보다 50% 할인해 판매하면서 녹용 10돈(37.5g)을 무료로 준다고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ㄷ한방은 성분표시 조작 하지 않고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ㄹ조합도 사슴녹용 중탕값을 35% 할인 판매하는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하면서 생녹용 20돈을 특별 증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ㄴ제약은 사슴녹용 중탕을 50% 할인 판매하면서 한 상자 구입시 생녹용 10돈, 두 상자 구입시에는 30돈을 무료로 준다고 광고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현재 한 상자당 40~60개 팩(한 팩당 80~100g)을 담아 5만 8,000~9만 8,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양록농가들은 이와 관련, 최근 이들 업체들이 대대적으로 광고를 펼치면서 국산녹용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유통질서도 문란해지고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심의하는 등

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관련기관에 촉구하고 나섰다.

양록협회도 이들 업체들의 광고를 유통질서 파괴행위로 규정하고 △허위 또는 과대광고 여부를 판단해 줄것을 광고심의위원회에 요청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품규격 미달 및 가격조작행위자를 고발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는 사슴 중탕 품질 기준을 마련해 줄것을 요구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양록농가 이철수씨(전북 전주시 삼천동)는 『사슴 중탕을 제대로 만들려면 사슴고기가 10kg이상 들어가 원가만 15만원 이상이 되는데 이들 업체들의 판매가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양질의 중탕 생산을 중단하는 농가가 늘고 있는 만큼 농가보호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민신문, 2000. 3. 13)